TSINGPU YANGZHOU RETREAT

2004년, 부부이자 동업자인 린든 네리(Lyndon Neri)와로사나 후(Rossana Hu)는 상하이에 네리앤드후 디자인&리서치 오피스(Neri&Hu Research office)를 공동설립했으며, 런던에도 지사를 두고 있다. 건축 및 도시계획을 전공한 이들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디자인 듀오로 잘 알려져 있는데, 특히 과감한 자재의 사용과 믹스매치를 특징으로 한다. 호텔, 미술관, 영화관, 복합 문화 공간 등 다채로운 건축, 인테리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스텔라웍스(Stellar Works)의 크리에이티브디렉터를 맡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TSINGPU YANGZHOU RETREAT은 소도시를 살리고자하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도시 재생 프로젝트로 네리앤드후의 디자인 스타일 및 특징을 엿볼 수 있다.

성은주 기자



ARCHITECT: Neri&Hu Research office WEBSITE: www.neriandhu.com TEL: +86 21 5286 2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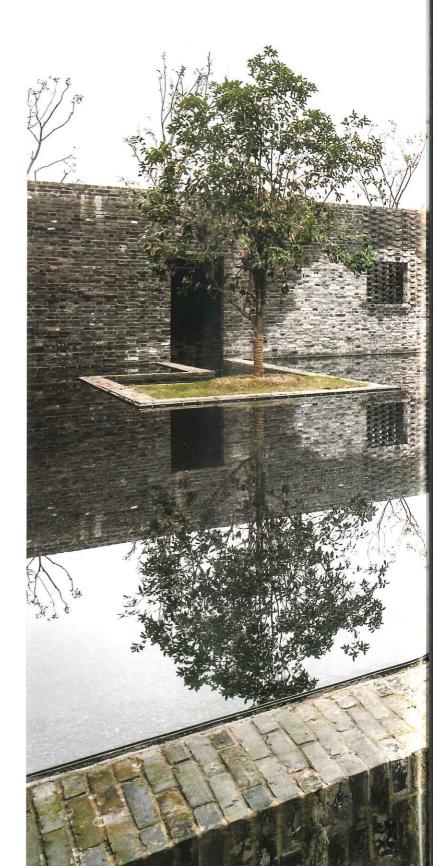
SITE AREA: 32,000sqm

TOTAL FLOOR AREA: 4,200sq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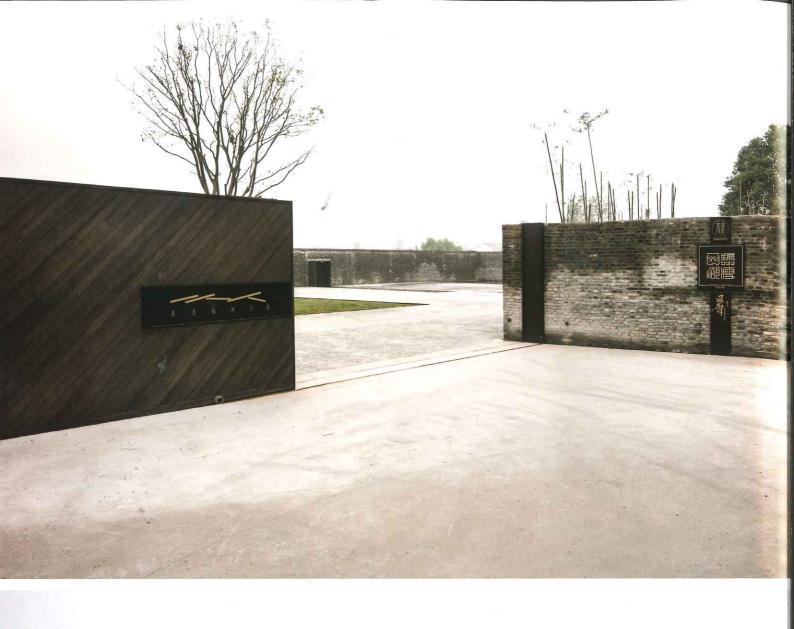
PROJECT LOCATION: 1 Baocheng road, Hanjiang district, Yangzhou, China

PHOTO CREDITS: Photo courtesy of Design Hotels

DRAWING PLAN: Neri&Hu Research off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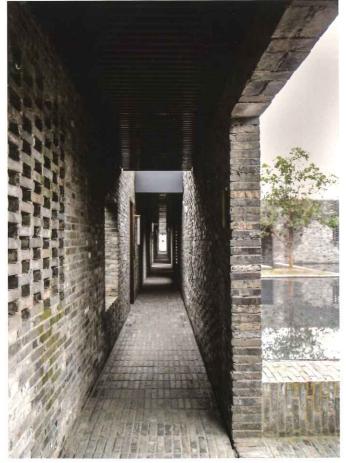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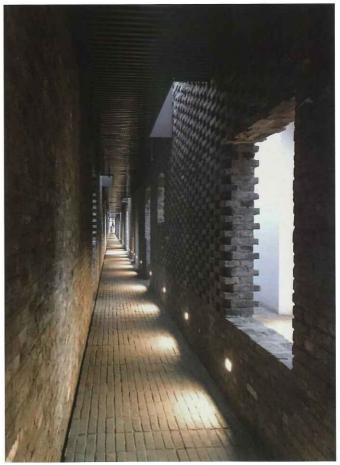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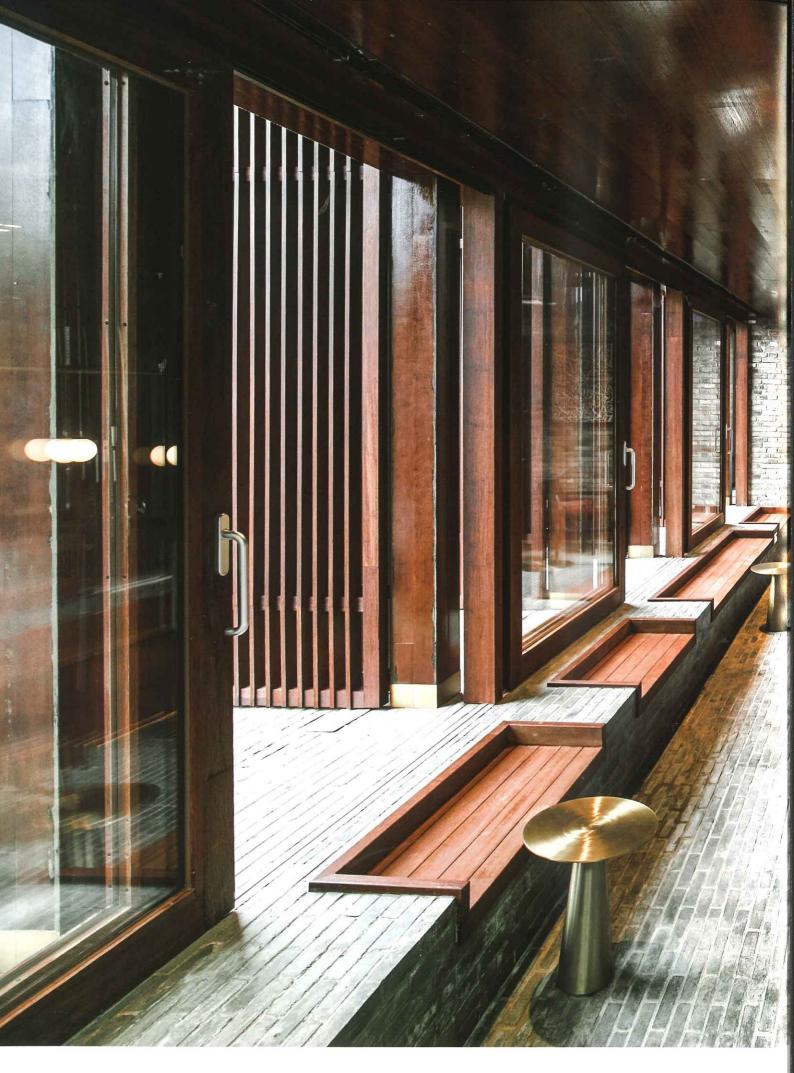
고즈넉하고 편안한 한 편의 시와 같은 안락함이 느껴지는 Tsingpu Yangzhou Retreat은 소도 시를 살리기 위한 시도로 시작된 프로젝트다. 물 정원(Water Garden)과 숲으로 둘러싸인 이 곳은 오래된 공간을 개조해 자연과 함께 쉴 수 있는 부티크 호텔이다. 디자인을 맡은 네리앤드후(Neri&Hu)는 중국의 전통 스타일과 서구 스타일 사이에서 교묘한 접점을 찾고, 그것을 건축 물로 실현시키는 디자인 팀으로, 이번 프로젝트 역시 미니멀한 웅장함, 낡은듯한 공간에서 발견되는 모던함처럼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특성과 요소의 대비가 눈에 띈다.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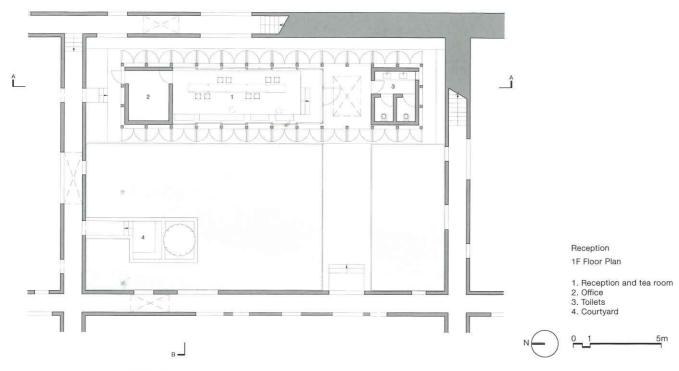


Tsingpu Yangzhou Retreat은 중국 양주 프로젝트라 불리며, 자연의 소재인 돌과 나무, 차가움과 단단함이 느껴지는 스틸 등 여러 자재를 과감하게 믹스매치해 익숙한 듯한 느낌 속에서 새로움과 독특함을 찾을 수 있다. 추억과 지역성이 깃든 건물을 만들기 위해 디자이너는 지역 문화를 프로젝트에 반영하고자 했고, 지역에 있는 벽돌을 사용해 담장을 쌓았으며 내부 바닥과 벽에도 벽돌을 활용했다. 손님을 맞이하고 다과와 담소를 나눌 수 있는 리셉션 및 라운지 공간은 따뜻한 공간 연출을 위해 목재를 메인 소재로 사용했으며, 벽돌과 스틸을 더해 풍성한 공간으로 그려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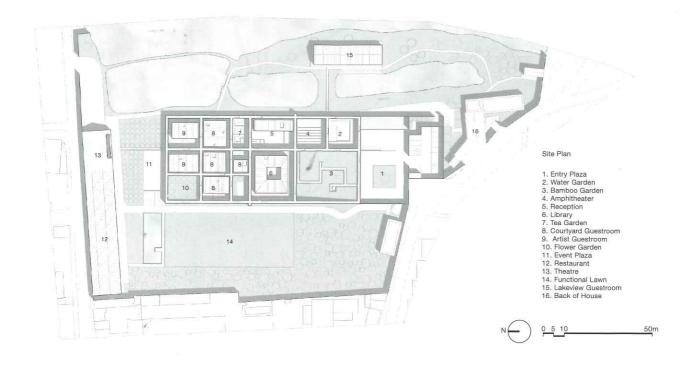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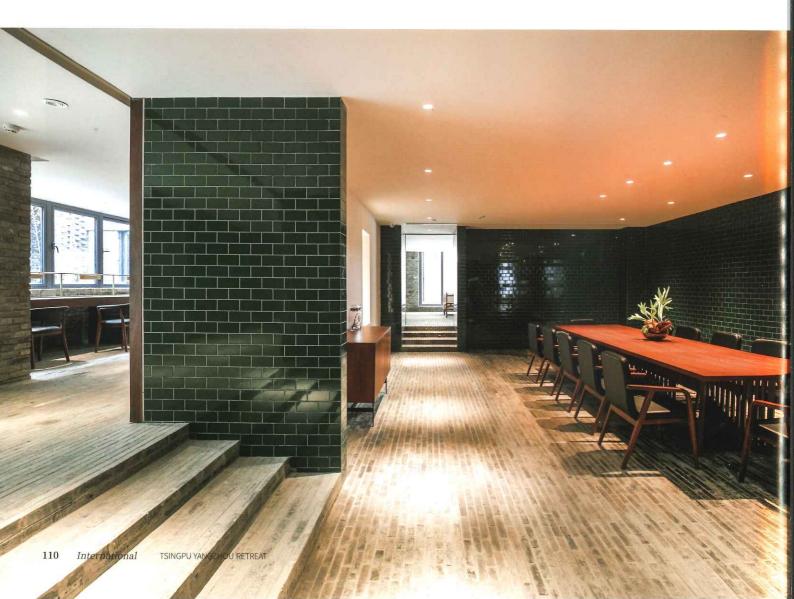
Tsingpu Yangzhou Retreat의 내외부 모든 곳에는 거닐 수 있을만한 공간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 외부에는 전통 주택의 안뜰처럼 정원과 대나무 밭 등을 배 치해 하늘과 땅을 바라보며 걸을 수 있는, 자연과 함께 하는 산책로가 있으며, 내부에는 그림 작품과 차분한 분위기를 즐기며 걸을 수 있는 갤러리가 마련되 어 있다. 넓은 부지를 최대한 활용해 시선적으로 방해되는 요소 없이 트인 공간으로 완성되었으며, 천고를 높게 해 마치 대자연 속에 있을 때와 같은 웅장함 을 주고자 했다.







과거의 풍경과 기억이 살아있는 Tsingpu Yangzhou Retreat에서는 현대적인 아름다움과 옛것의 감성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건물 존재의 시작과 의미를 되짚어보며, 내외부에 대한 경계를 흐리고자 했던 디자이너의 의도에 따라 내부 공간은 주로 목재와 벽돌을 사용했다. 여기에 광이 나는 타일과 같은 대비적인 소재와 컬러, 가구 및 간접 조명 배치 등을 더해 편안한 듯 감각적인 공간을 완성했다. 특히, 가구 배치의 경우 치밀하게 잘 짜여 있으면서도 적절한 여백과 여유 공간으로 편안함이 느껴진다.











20개에 이르는 객실은 프라이빗하고 내적인 분위기로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킹사이즈 침대, 거실, 욕실, 정원 등으로 구성되어 고급스러운 휴 양지에서 쉬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으며, 오픈 스페이스 형식의 공간으로 시원하고 자유로운 느낌을 준다. 객실 역시 벽돌과 목재를 활용해 다른 공간 과의 통일성을 부여했고, 구역별로 다른 바닥재를 사용해 시각적으로, 그리 고 기능적으로 유니크한 공간을 완성했다. 화장실 천장에는 창문을 만들어 자연과 동화되는 듯한 느낌을 주며, 욕조는 대부분 천창 아래 배치해 마치 야 외에서 일광욕과 목욕을 함께 즐기는 듯한 상쾌함이 느껴진다.





SPACE STORY

Poetry in bricks, Tsingpu Yangzhou Retreat by Neri & Hu has been drawing guests from near and far. The 20-room boutique hotel was built on a site dotted with small lakes and existing structures that needed to be reused. The result is a lyrical reimagining of traditional Chinese architecture, where courtyards play a pivotal role in a series of interconnecting structures both old and new, while blurring the transition from interior to exterior and connecting the elements of the sky and the earth. A grid of walls and narrow pathways guides guest through the complex, at times up a set of steps for a unique vantage point of the surrounding natural beauty, and at others to a contemplative corner for a pause. Committed to highlighting the best of Yangzhou, guests can take part in handicraft and cooking classes but also more unusual activities such as dressing in traditional opera costume. Situated just north of Yangzhou's Slender West Lake, a tranquil national park, Tsingpu Yangzhou offers a precious commodity in an urban getaway—pure serenity. The 20 guestrooms span from the 33-square-meter Courtyard Room to the 78-square-meter Private Courtyard Room, and all feature a king-size bed, a desk, a living area, and bathtub. Many



of the tubs sit beneath a skylight, which gives the feeling of bathing outdoors. Several guestrooms also have a private courtyard, creating a layer of privacy and a sliver of landscape for guests to enjoy. The palette of old Yangzhou architecture is reflected at Tsingpu through the patina of salvaged bricks and materials. The walls and the courtyard are a strong landscape element that unify the complex site while creating layered spaces that seeks to redefine tradition with a modern architectural language. The walls here come to life thanks to light that peeks through its crevices unpredictably, offering unique perspectives and providing space for contemplation. Most of the buildings' roofs are set below the height of the walls, which hides the retreat from afar. Constructed entirely from reclaimed gray brick, the gridded walls' narrow interior passageway forces a long perspective, while light plays off the various brick patterns, enticing guests to venture ever deeper into the project.